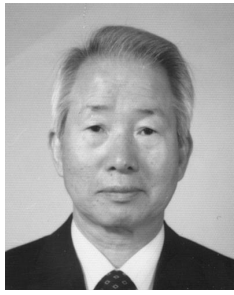


나를 알아보는 소들



임경순 · 명예교수
서울대 번우연구소장

2002년 송아지를
입식하여 2006년 울
해로 만 4년이 넘었
다. 대부분은 4산을
거쳐 5산을 바라보
고 있다.

관리인을 두고 경
영을 하고 있어 나
는 1주일에 한번 연구
소에 들린다. 내가

하는 일은 소를 관찰하고 우사에 들어가 안개분무
기로 우사를 소독하고 그 외 눈에 띄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소를 관찰하기 위하여 먹이통 앞에 서있
으면 나를 알아보고 눈 맞춤을 하는 소들이 있다.
번식우 20마리 중에서 나를 알아보고 내 안에 와
서 눈 맞춤을 하는 소는 관리번호 01-11, 01-29,
01-38 3마리이다.

그중에서 제일 친근한 놈은 01-29이다. 이놈
이 나에게 다가 오면 나는 눈 밑 턱 부분과 머리
뒷부분을 긁어 주는데 그렇게 좋아한다. 이놈은 내
가 우사에 들어가면 다가 와서 자꾸 상대를 해달
라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긁어 달라는 것
이다. 긁기를 끝내고 다른 소를 상대하면 나에게

더욱 가까이 와서 자기를 상대해 달라는 것이다.

01-11이란 놈은 내가 먹이통 앞에 서면 내게
접근한다. 턱을 긁어주면 머리로 툭툭 받으며 반
응하는 듯하나 차츰차츰 긁어주다 보면 슬며시 곱
어 받는 쪽으로 기운다.

이놈은 키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체구가 딱 버
러지고 똑심 있게 생긴데다가 근사한 뿔이 있어서
이놈이 우두머리(보스)이다. 이놈은 사료줄 때 항
상 스탠치온 1번에서 제일 먼저 사료를 먹으며 이
자리는 완전히 이놈의 것이다.

그래서 이놈은 붙들기가 쉽다. 인공수정이나 주
사를 하려고 이놈을 붙들려면 이놈 자리 먹이통에
벗짚을 약간 넣어주면 바로 이놈이 들어와 먹기
때문에 쉽게 붙들 수 있다. 먹성도 좋고 제일 먼저
먹어서인지 BCS(체중충실도)4로 좀 살이 찌었다.
살이 찌있어도 분만 후 적당한 시기에 발정이 오
고 1수태당 수정회수도 4산 평균 1.5로 우수하다.

이놈의 미운 점은 비유 중에 있는 동료소의 젖
을 빼는 것이다. 나의 연수는 번식우 20두를 한 공
간에 넣어 기르고 있어 동료소의 젖을 빨 수 있다.
어떻게 하여 젖을 빨아 먹는 악습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포유를 늦게 가지
한 송아지는 큰 소가 되어 젖을 빨다고 한다.

남의 젖을 빼는 소가 3~4마리 있다. 어떤 때보

면 2~3마리가 줄줄이 젖을 빨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습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젖 빠는 소에 코뚜레를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코뚜레를 하면 어떤 코뚜레를 할 것인가. 궁리 끝에 야단치는 방법을 생각했다.

젖을 빨고 있을 때 막대기를 가지고 우사에 들어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며 젖 빨던 소를 쫓아다니며 엉덩이고 등이고 머리를 때리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젖을 빨다가도 내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 눈치를 보고 슬며시 도망을 친다.

제일 많이 야단을 마진 것이 01-11인데 내가 야단치고 때린다고 하여 나를 무서워하고 다시는 내게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먹이통 앞에 서면 여전히 다가와서 이는 척하고 상대해 하기를 바란다.

01-38도 내가 먹이통 앞에 서면 나를 이는 척한다. 내가 턱이고 머리를 긁어주면 좋아한다. 이 놈은 처음에는 사나운 놈으로 알았다. 미산 때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스탠치온에 고정해 놓고 주사를 놓다가 뒷발질을 해서 채일 뻔 한 적이 있다. 목 피하주사를 할 때도 유난이 저항이 심했다.

그래서 성질이 괴팍한 줄 알았는데 우연히 먹

이통 앞에 얼굴을 내밀기에 긁어주었더니 순순히 응해주어 친밀하게 되었다.

05-13은 연구소에서 태어나 키위 이제 1년 6개월이 된 미경산우이다. 키울 때 사료조를 청소하는데 먹이통에 고개를 내밀고 이는 척하는 것이다. 매주 소독을 하면 도망하지 않고 소독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닦아 온다. 독방에서 키우다가 이제 우사로 옮겨 다른 19마리와 같이 지내는데 내가 우사에 들어가 소독을 하면 이는 척하고 다가온다. 아직 긁어주지는 못하나 나에게 친밀감을 보이고 있다.

이외도 대부분의 소들이 나를 인식하고 있다. 얼굴을 건드리게 하지는 않지만 안다는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려오고 있다.

임신 4개월이 되면 스탠치온에 매어 놓고 직장검사에 의한 임신감정을 하는데 모두 다 잘 협조를 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소의 뒤에서 말을 걸면 크게 저항하지 않고 응해준다. 내가 직장검사 하는 것을 구경하는 놈도 있다. 사람의 성품이 다다른 것처럼 소의 성품도 다 다르다. 소의 성품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소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